

성명	이은서	수험기간	2022.03.-2024.07.
학교	서강대학교	전공	화공생명공학과
키워드	기득 상표고득점		

들어가며

☑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61회 변리사 시험에 최종합격한 이은서라고 합니다. 저는 상표 고득점자로서, 기득으로 합격했습니다. 합격수기 작성에 앞서 제가 받은 점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점수 요약

<60회 1차 합격>

산재법 92.5

민법 85

자연과학 80

-평균 85.8/ 전국 11등

<60회 2차(동차) 불합격>

민사소송법 40점 초반/15p

특허법 52~/15p

상표법 50~/15p

디보법 pass

*기록이 날라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61회 2차(기득) 합격>

민사소송법 54.6/19p

특허법 53.6/17p

상표법 64.6/18p

디보법 71.0 pass

- 평균 57.6 합격/ 전국 66등

☑ 암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많은 양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가장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성향을 고려해, 저는 2차시험 합격을 위해 민사소송법은 방어적으로만 공부하고 특허법과 상표법을 주력과목으로 공부 하자는 전략을 세워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수기를 통해 저처럼 암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차 공부

【민법】

☑ 시기별 공부방법

2022.03.-04. 김동진 강사님 기본강의 수강

2022.05.-06. 민법공방 2회독

2022.07. 민법공방 3회독

2022.08.-09. 민법공방연습 1회독

2022.10. 김동진 강사님 중급강의 수강 + 민법공방 4회독

2022.11. 민법공방연습 2회독

2022.12. 민법공방 5회독

2023.01. 민법공방연습 3회독

2023.02. 민법공방 6, 7회독 + 민법공방연습 (틀린문제만) 4회독 + 직전 민법공방 8회독

☑ 시기별 교재/강좌

민법공방, 민법공방연습/김동진 기본강의, 중급강의

☑ 강좌 활용 방법

민법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할 때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법과목입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실텐데, 공식이 있고 답이 명확한 이공계 과목과는 달리, 민법은 처음 배우면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모순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뒷부분을 배우지 않으면 앞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처음 배우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힘듦과 관련해, 민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강약조절’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깊고 꼼꼼하게, 덜 중요한 부분은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 중심으로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강약조절에 대해서는, 김동진 강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더라도 우선은 넘어가라, 뒷부분 배우고 다시 돌아올 거다”, “이 부분은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라”, “이 부분은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하라”, “좌표설정을 잘하라”, “이 문장은 시험에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나온다” 등 강사님이 강의 도중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잘 따라갔고, 민법에 크게 괴로움 느끼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법공방은 변리사 민법시험에 필요한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님이 강의를 통해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변리사 민법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강약조절하며 회독할 수 있었습니다.

중급강의 역시 추천드리는 강의입니다. 중급강의에서는 기본강의와 다르게,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 파트의 각 개념들을 연결시켜주셔서, 민법의 많은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본서를 3회독 정도 하신 후, 민법공방연습으로 각 개념들이 문제화되는 것에 대한 감을 익히신 후에, 중급강의를 수강하신다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교재 활용 방법: 단권화

민법 역시 법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서를 여러번 회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민법공방연습(객관식 문제집)은 3번만 회독했고, 민법공방은 8번 회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는 얘기로, 법과목은 시험 전날 하루동안 1회독을 할 수 있으면 그 시험은 붙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민법을 시험 전날 1회독 하기 위해서는, 나의 책임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파트를 펼쳐도, “이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문제화되고, 이 부분은 이 개념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바로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나마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단권화” 및 “다회독”인

것 같습니다. 단권화란, 책 하나만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저는 민법공방(기본서)에 민법공방연습(객관식)의 내용을 넣어 단권화했습니다. 객관식 시험인만큼, 자주 출제되는 유형/판례가 문제화되는 방법/틀린 지문을 만드는 방법 등이 정해져있고, 이것을 미리 알고 객관식 문제 풀이에 접근하는 것이 고득점에 유리합니다.

저는 기본서를 맨 처음 회독할 때는 샤프만 사용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한 판례에는 하나의 조문, 하나의 법리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총칙에서 배운 판례에 물권법 또는 채권법의 내용이 나온다면, 처음 공부할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어느정도 쿨하게 넘겨가며, 기본서를 3회독 정도 하였고, 강사님이 표시해주시는 페이지를 왔다갔다하며 공부했습니다. 기본서 3회독 정도 한 후에는 민법공방연습을 공부했습니다. 민법공방연습을 한 달간 매일 일정범위를 나누어 풀었고, 명확히 아는 문제/애매한 문제/모르는 문제로 구분한 후, 애매한 문제와 모르는 문제는 민법공방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각 조문과 법리가 “문제화 되는 방식”을 “민법공방에 표시”하며 단권화를 진행해나갔습니다. 또한, 그리고 다시 강사님의 중급강의를 수강하며, 비슷한 법리, 비교되는 법리, 상반되는 법리, 헷갈리지 않아야 할 법리들을 정리해나가며,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민법공방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법공방연습을 한 달간 풀었고, 다시 헷갈리는 개념/또 틀리는 문제 등을 정리하며 “민법공방에 표시”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가며, 제 기본서는 법리가 문제화되는 방법/비교 법리/틀린 지문이 출제되는 방식 등으로 채워졌고, 머릿속에 중요한 부분과 각 법리 또는 판례의 키워드가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 키워드가 파악된 이후, 회독 후반부에는 형광펜과 색깔 있는 볼펜들을 사용해 강조 표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 직전 회독에서 많은 것을 머리에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마인드

<1> 법과목과 이공계과목은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공계 과목을 공부하실 땐 하나가 이해가지 않으면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다음 진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과목은 알게 여러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회독 초반에는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독수를 점차 늘려가고, 객관식 문제집을 병행할수록, 이해되지 않던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민법의 각 개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회독 초반에는 민법총칙 파트를 공부하면 채권법 파트를 까먹고, 채권법 파트를 공부하면 민법총칙 파트를 까먹는 것에 괴로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칙의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괴로움을 버티시고 꾸준히 회독하시면 언젠간 깨달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이런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회독하시길 바랍니다.

<2>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모든 객관식 시험은 기출문제의 출제기조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각 법리마다 문제화되는 방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법무사 시험/변호사 시험등 각종 민법시험의 출제유형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마스터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하고, “이 법리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보다는, “이 법리는 어떻게 출제될까”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3> 1차 시험은 8과목을 공부해야 하지만, 민법은 1차 시험 총 120문제 중 40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1차 시험에서 민법의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공부시간의 절반 이상을 민법에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4> 위에서 제가 시험 전날 1회독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실 제 회독 속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전 3일에 걸쳐 마지막 회독하고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험 전날 1회독에 너무 목숨 거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수험기간 약 1년동안 열심히 하셨다면,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을 것이니 걱정마시고 시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재산권법】

☑ 시기별 공부방법

2022.05.-06. 특허 기본강의 수강

2022.07.-08. 특허 기본서 2회독+객관식 1회독

2022.08. 상표 기본강의 수강

2022.09.-10. 특허 기본서 3회독+객관식 2회독, 상표 기본서 2회독+객관식 1회독, 특허 및 상표 조문 암기

2022.11. 디보 기본강의 수강, 특허 및 상표 조문 암기

2022.12.-2023.01. 특허 기본서 4회독+객관식 3회독, 상표 기본서 3회독+객관식 1회독, 디보 기본서 2회독+객관식 1회독

2023.02. 특상디 각 회독 및 오답

☑ 공부방법

<1> 특허법의 중요성

특허법은 2차 시험에도 나오는 과목이고, 1차 시험 총 120문제 중 20문제 출제되는 만큼 중요성이 높은 과목입니다. 또한, 특허법 공부를 통해 산업재산권법의 등록요건/출원단계/등록단계/침해판단/침해소송/심판 등 큰 틀을 익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비해 시간 투자가 더욱 필요한 과목입니다.

<2> 3법의 비교정리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비슷한 개념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 차이점도 많기 때문에, 공부하다보면 이 개념이 특허법 내용인지, 상표법 내용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각 법을 비교하고 내용을 정리했고, 이를 포스트잇에 적어 자주 보았으며, 시험 직전에 포스트잇들을 모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3> 객관식 문제풀이 중요성 및 단권화

산업재산권법의 경우, 법조문의 한 단어를 바꿔서 틀린지문을 내는 등 지엽적인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는 바, 객관식 문제풀이 중요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기본서 회독과 객관식 문제집 회독을 병행하면서, 조문 또는 판례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익히고, 틀린 문제는 기본서에 옮겨가며 공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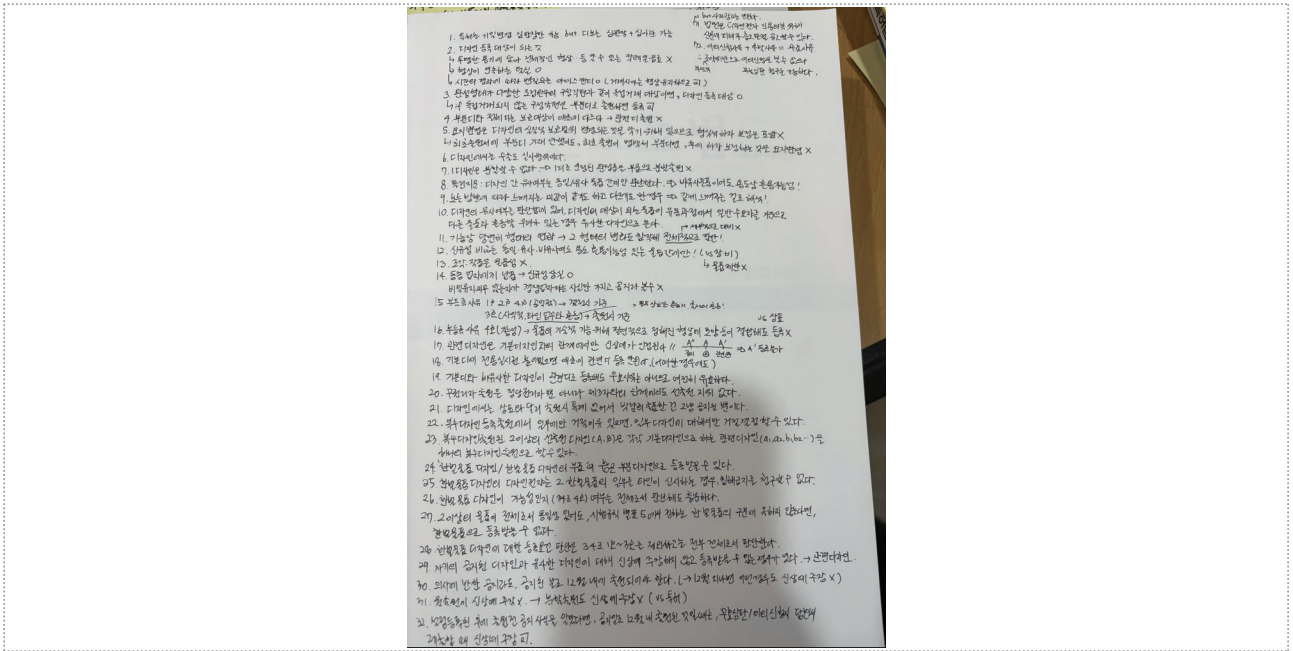
<4> 조문 암기 필요성

저는 특허, 상표 조문 암기를 했던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판장/심판장/심판관을 바꿔서 내기도 하는 시험 특성상, 조문 암기는 고득점을 받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혼자서 조문 암기를 하는건 힘들 수 있어, 오픈카톡방 등을 활용해 조문 암기 스터디를 하신다면 매일 일정한 범위의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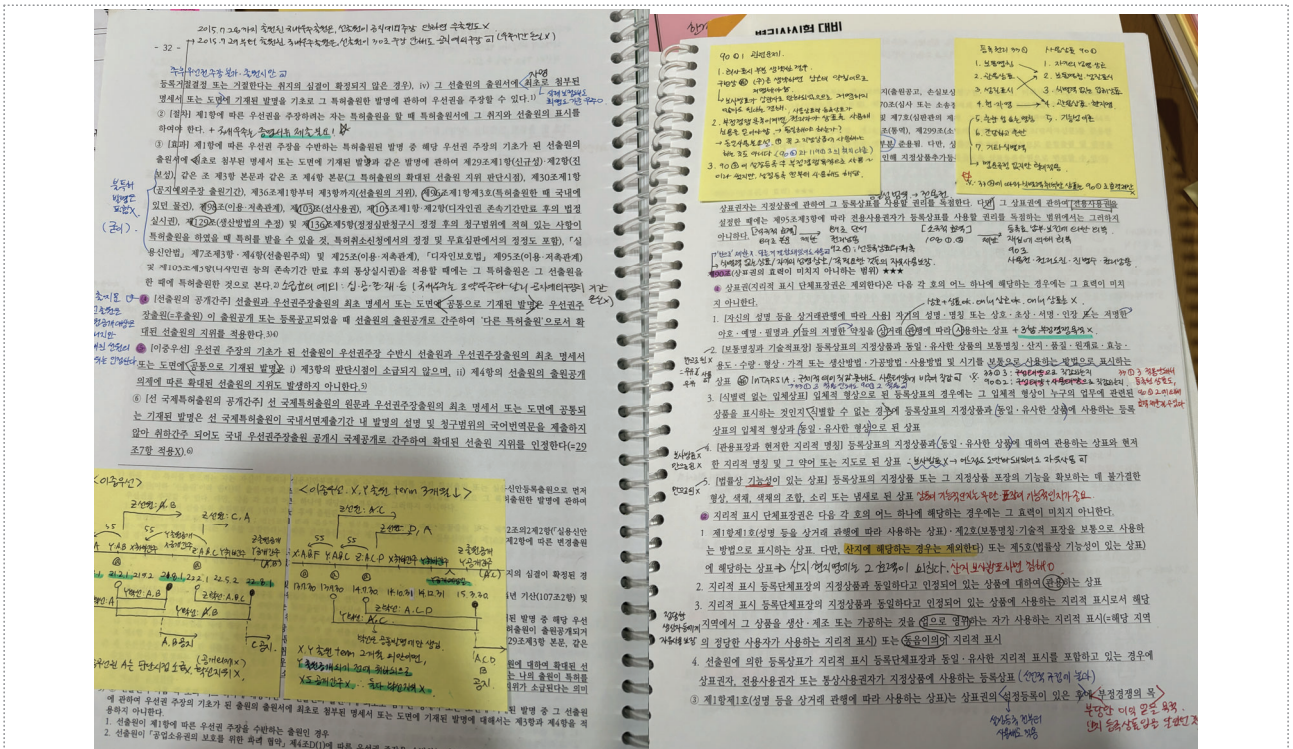
<5> 시험 직전 최종 단권화 및 회독

민법 회독할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법은 시험 전에 기본서를 풀회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까지의 기본서에 단권화하여 회독했지만, 시험 직전인 2월에는, 특허/상표의 경우 조문집에 오답선지 등을 단권화해 최종 회독했고, 디자인의 경우 오답, 헷갈리는 선지만 모아 최종자료를 만들어 회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디자인 최종자료



*특허 상표 조문집 단권화



[자연과학개론]

❑ 시기별 공부방법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물리/화학 베이스는 있었지만, 생물과 지구과학을 공부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 문제 풀이를 3월부터 조금씩 공부하였고, 민특상 기본강의를 수강한 후, 양이 많은 생물 기본강의를 수강했고, 겨울에 지구과학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2022.03.-06. 물리 화학 객관식문제집 1회독

2022.08.-09. 생물 기본강의 수강

2022.10.-11. 물리 화학 객관식 문제집 2회독, 생물 객관식 문제집 1회독

2022.12. 지구과학 기본강의 수강 + 객관식 문제집 1회독

2023.01.-02. 물화생지 객관식 문제집 최종 1회독씩

☑ 과목별 공부방법

처음 접하는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하기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각 과목은 모두 강사님들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강사님들이 배포하시는 자료들 위주로 공부하는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물리, 화학의 경우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집을 구매해 기본강의는 수강하지 않고 문제집만 풀었습니다. 다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 등을 파악하거나 모르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강사님들이 올려주시는 특강, 자료 등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였습니다. “물리1, 물리2, 일반물리, 화학1, 화학2, 일반화학”을 모두 공부하셨다면, 강의를 전부 듣는 것보다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부족한 부분 위주로 강의를 들으며 학습하신다면 효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와 화학은 암기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중요하고, 문제풀이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므로, 수험기간 초반에 기본강의를 수강하신 후 수험전반동안 일주일에 일정량의 문제를 풀며 실력을 늘려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구과학의 경우 윌비스 박준희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내용도 적은데 강의와 교재도 워낙 잘돼있어서, 12월에 기본강의 수강한 후 바로 암기 스퍼트를 올려 1차 시험을 보았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4개의 법과목에 치여 자연과학을 공부할 시간을 내기 도저히 힘들었는데, 법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신 후, 조금 늦게 지구과학을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물은 제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습니다. 생물은 기본강의를 수강하며, 필기해주시는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고, 기출문제를 회독하며 변리사 생물에 주로 나오는 파트를 더욱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워낙 양이 많고 지엽적인 것도 나올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나눠주시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 마인드

1차 시험도 점점 고여가고 있는 바, 자연과학 4과목 중 한과목을 버리는 전략은 안정적인 합격에 굉장히 위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과목을 챙기시되, 가성비가 높은 지구과학은 무조건 다 맞히고, 가성비가 낮은 화학은 풀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맞힌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직전 회독】

1차시험은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총 8개 과목을 전부 공부해야한다는 부담이 큰 시험인 것 같습니다. 양이 많고 비중이 높은 민법만 공부하자니 물화생지를 까먹고, 특상디를 공부하다보면 민법을 까먹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2월에는, 전과목을 골고루 돌리실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과목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어느정도 올라온 후, 11-12월쯤 부터는, 시험 직전에 볼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내가 완벽히 아는 것은 패스하고, 잘 모르고 자주 헛갈리는 것들을 모아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잘 모르고 자주 헛갈리는 것이 점점 줄어들었고, 시험 직전에 볼 자료가 점점 적어졌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런 방법을 활용해 시험에 임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공부 - 동차 기간

【시기별 공부방법】

2023년	3월	4월	5월	6월
민사소송법	이창한 기본강의	이창한 사례강의	이창한 기초GS	이창한 실전B
특허법	박형준 기초GS+		박형준 실전B	박형준 콜라보GS
상표법	한경훈 기초GS+		한경훈 실전B	한경훈 콜라보GS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기초GS	

【과목별 공부방법】

☑ 민사소송법

<교재 및 강좌>

이창한 강사님의 통합 민사소송법과, 사례 민사소송법 교재를 사용했고, 이창한 강사님의 기본강의와 사례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gs>

이창한 강사님의 기초gs와 실전b를 수강했습니다.

☑ 특허법

<교재 및 강좌>

박형준 변리사님의 준특허법을 사용했습니다.

<gs>

박형준 변리사님의 기초 gs+와 실전b, 콜라보gs를 수강했습니다.

☑ 상표법

<교재 및 강좌>

한경훈 변리사님의 데생상표법을 사용했습니다.

<gs>

한경훈 변리사님의 기초 gs+와 실전b, 콜라보gs를 수강했습니다.

【불합격 요인】

☑ 민사소송법 미흡

저는 암기를 매우 싫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민사소송법 법리와 판례를 외우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변리사 2차시험은 천하제일 민소대회라고 불릴만큼, 민사소송법에 점수를 잘 주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잘 봐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사소송법을 계속해서 멀리했던 저는, 결국 공동소송파트는 제대로 공부해보지도 않은 채 시험을 보러 갔고, 결국 한 설문은 백지로 난채 동차시험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 암기 부족

민사소송법 뿐 아니라, 특허법과 상표법 역시 암기가 부족했고, 암기가 부족해 필속이 느껴 시험장에서 한 설문씩 백지로 냈습니다.

☑ 결론

동차로 붙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사후적으로 돌아본다면, 동차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동차로 합격하셨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사소송법 사례집을 완전히 암기했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동차 합격을 위해서는, 특허상표는 강사님들 gs를 잘 따라가고, 민사소송법 위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차 공부 - 기득 기간

【시기별 공부방법】

2023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민사소송법	이창한 심화강의		기본서 회독	기본서회독+사례집+작년기초GS	
특허법			기본서 회독	박형준 판례강의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023년	3월	4월	5월	6월	7월
민사소송법		이창한 실전A	기본서회독+기초GS풀이		이창한 실전B
특허법	박형준 실전A		작년 기초GS+로 이해/암기 끌어올리기		박형준 실전B
상표법	한경훈 실전A	판례집 회독	작년 기초GS+로 이해/암기 끌어올리기		한경훈 실전B
디자인보호법					기본서 회독/암기 GS논점 위주 공부

【과목별 공부방법】

☑ 민사소송법

<1> 서론

저는 민사소송법이 취약과목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각 논점에 대한 학설과 검토를 써야한다는 점에서, 특허상표와 차이가 큼니다. 저는 방대한 양의 학설과 판례, 검토를 암기하는 것도 힘들었고, 답안지 작성하는 법도 5-6월이 돼서야 제대로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소송법을 방어과목으로 하여, 55점만 맞자는 전략으로 공부했습니다.

<2> 회독방법 + gs 활용 방법

저는 민사소송법은 기본서를 공부할 때와 문제로 접할 때의 괴리가 좀 느껴져서, 기본서를 회독하며 사례집에서 문제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례집에서 각 법리들이 문제화되는 방식을 파악하고, 사례집의 목차를 기본서에 옮겨가며 공부했습니다. 또한, gs에서 나온 논점들을 기본서에 표시하고, 강사님 답안의 목차를 기본서에 옮겼으며, 누락하기 쉬운 부분을 표시하고

채워나갔습니다.

<3> 암기방법

저는 주로 손을 써서 암기하는 편인데, 민사소송법은 모든걸 손으로 쓰기엔 손목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건 자꾸 졸게 돼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손목에 힘 다 빼고 글씨를 날려쓰는 방식으로 암기했습니다. 또한, 이 동시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이동시간 동안 “flash card”라는 어플을 이용해, 각 논점에 대한 학판검 등을 암기했습니다.

☑ 특허법 및 상표법

<1> 서론

저는 사실 개인사정으로 인해 3,4월 2달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주말에 학원만 다녔고, 하루에 2-3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이 기간을 거쳐 5월이 되자,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전부 휘발되었고, 실전b를 수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 기초gs+를 통한 공부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보기 위해, 암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작년에 수강했던 기초gs+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기본서를 회독하고, 다음날 회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초gs+를 풀면서 회독한 부분에 대한 암기/목차구성 익히기를 한번에 할 수 있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득 수험생분들께도, 본격 gs 시즌이 되기 전 1-2월쯤 기초gs+ 를 공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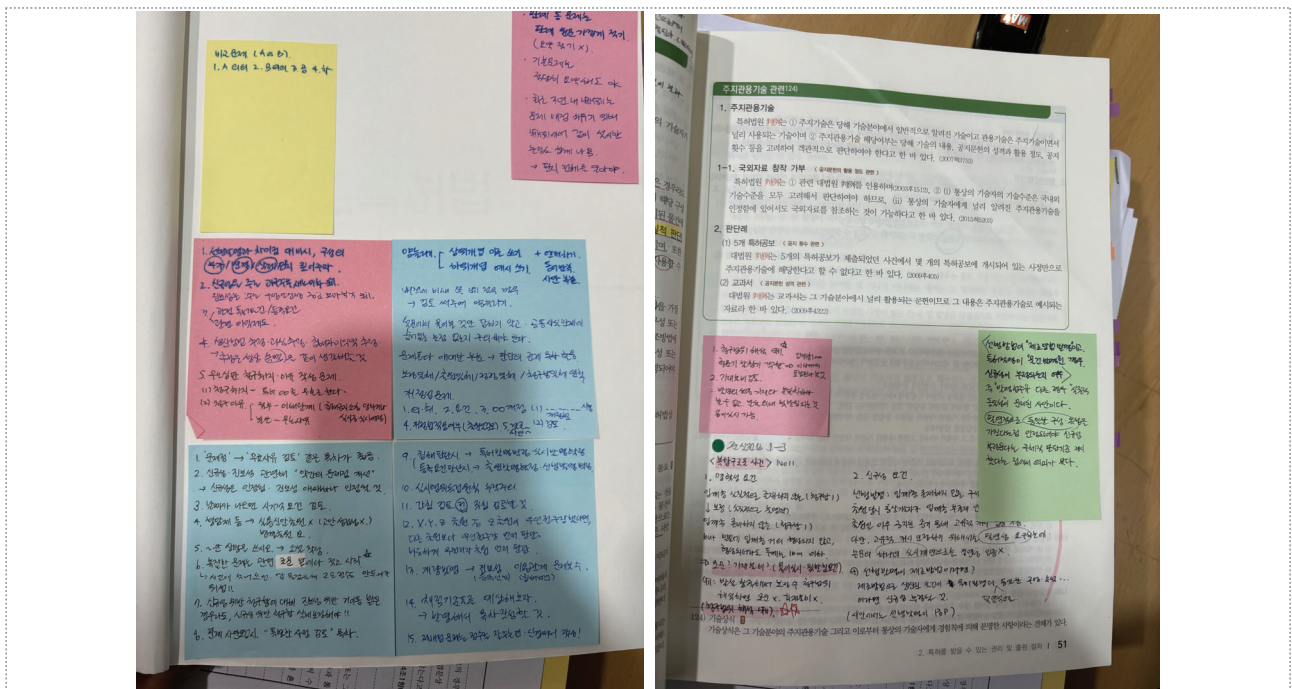
<3> 기본서와 판례집 위주의 공부 및 단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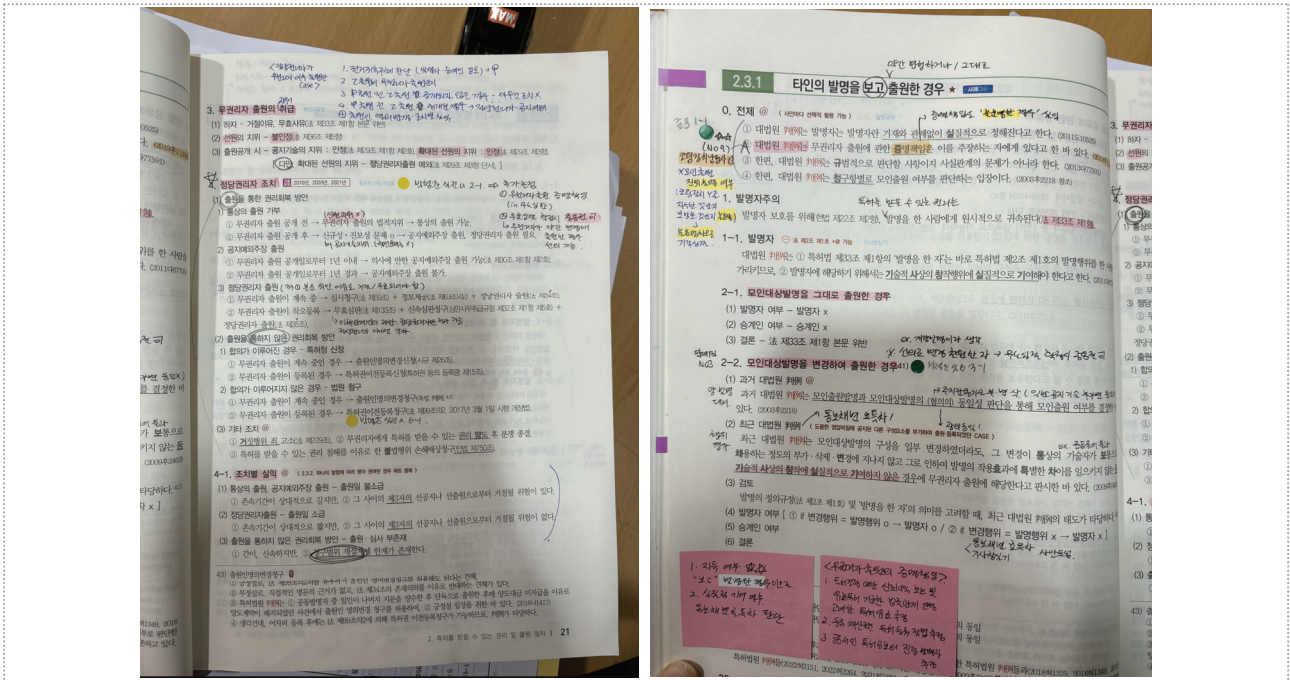
저는 gs를 여러개 수강하기 보다는, 기본서와 판례집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gs를 여러개 수강할 시간이 없기도 했고, 기출 문제와 gs간의 괴리, 짱돌 문제가 나올 리스크 등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gs 또는 최신판례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정리한 내용을 기본서에 옮겼습니다. gs에 나온 논점과 좋은 목차를 기본서에 옮긴 후, 이를 다시 회독함으로써, 해당 법리가 이렇게 문제화되고 이렇게 목차를 쓸 수도 있구나를 느끼며 공부했습니다.

<4> 오답노트

gs를 풀며 누락한 논점, gs를 풀며 좋았던 목차, 사안포섭에 실수한 것 등을 기본서에 표시하고, 포스트잇에 정리해 시험직전 회독에 활용했습니다.

*특허 정리





☑ 상표법 답안지 작성에 대해 **

<1> 서론

상표법은 등록 단계/침해 소송 단계/심판 단계의 문제들이 메인 논점으로 출제됩니다. 저는 3유형의 문제들을 다른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2> 33조와 유사판단의 경우 - 판례의 사안포섭 위주 공부

저는 식별력 판단과 유사판단은 개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33조1항3호, 33조2항 등 출원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문제와 유사판단에 관한 문제는, 논리정연하고 풍부한 사안포섭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판례집을 회독할 때, 판례가 사안포섭을 어떻게 하는지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식별력 판단에서는, 판례는 풍부한 어휘력을 사용하여 사안포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유사판단에서는 외관/호칭/관념을 하나하나 비교한 뒤, 전체관찰, 출처 혼동 여부 판단 흐름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고, 답안을 쓸 때 이를 녹일 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61회 2차시험 상표법 문4 설문(1)에서 을이 “스프링처럼 탄력있는~” 이라며 식별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33조1항3호의 알바천국 판례를 떠올렸습니다. 알바천국 판례에서 “근무여건이 이상세계처럼 편하여 아르바이트 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관념을 지니는 것으로, ~한 암시를 줄 수 있으나, 지정서비스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할 수 없다.”한 것을 활용해,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어휘력을 활용해 “스프링처럼 탄력있는 몸을 가질 수 있다는 암시를 줄 수 있으나, 지정서비스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할 수 없다”고 사안포섭을 작성했고, 41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침해판단, 무효심판(34조1항11,12,13,20,21호) 취소심판(119조)의 경우

침해 여부 판단과, 무효/취소심판 인용 여부 판단의 경우는,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 침해/인용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목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마다 논점이 되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논점이 되는 요건을 강조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요건은 논점정리에서 미리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래의 흐름으로 작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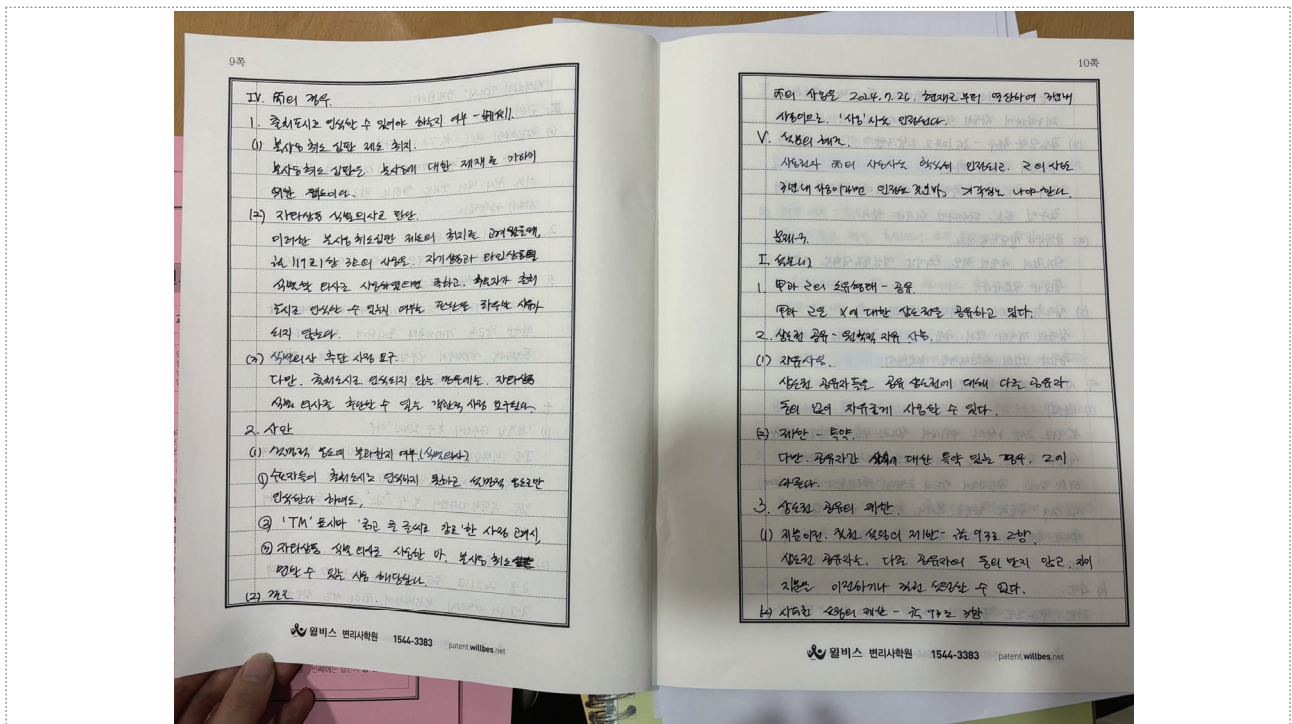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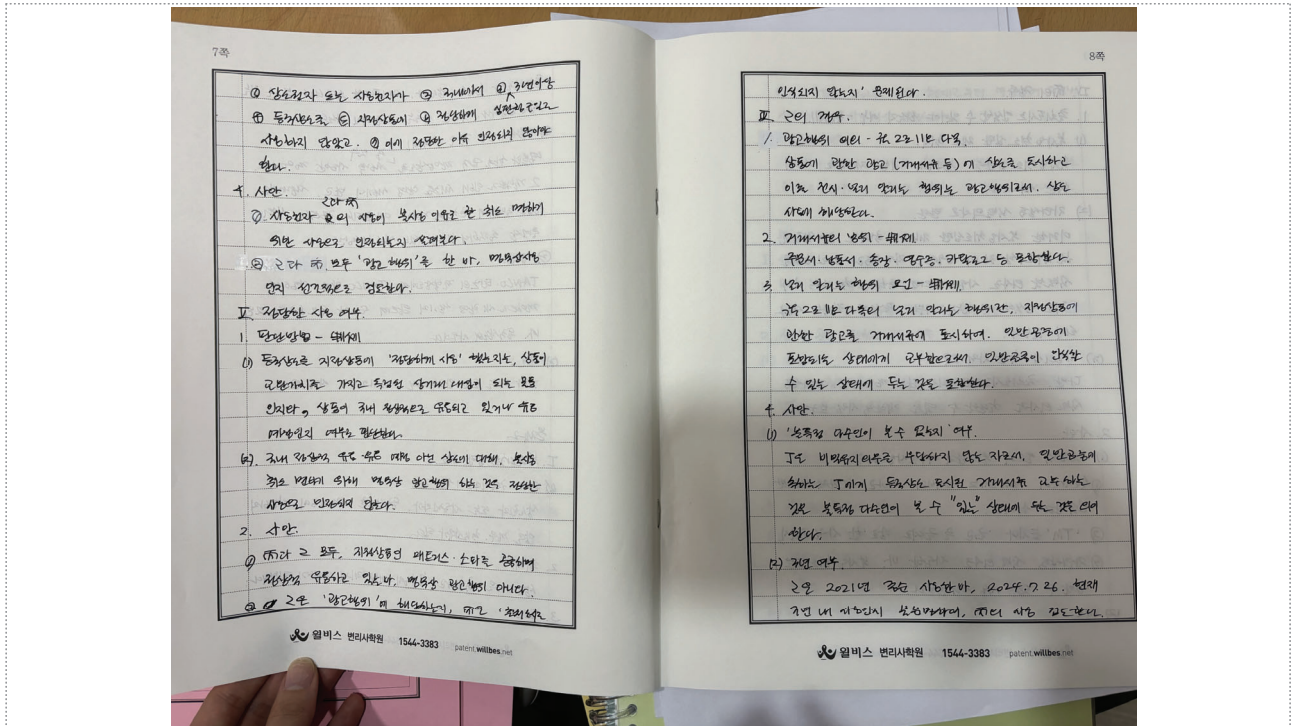
1. 조문의 의미, 취지
2. 논점정리 (1) 침해요건/취소심판 요건 (2) 사안 - 1.2. 요건은 ~이래서 만족하므로 3.4요건이 문제된다.
3. 3요건 여부
4. 4요건 여부

5. 결론

무효심판, 취소심판의 경우는 주로 타겟되는 판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각 판례의 사건 흐름과 문제되는 논점들을 전부 체크해서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34조1항13호의 노단자 판례의 부정목적 판단, 34조1항11호의 현대 판례의 타인여부 판단 등이 있습니다.

<4> 글씨체와 깔끔한 답안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읽기 좋은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쁜 글씨체 보다는 “읽기 쉬운, 시원한, 큰” 글씨체가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목차와 내용이 정확하게 구분되기 위해 내용 부분은 사각형으로 보이도록, “양 끝부분의 줄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안포섭이 너무 중구난방 길어지지 않도록, 사안 포섭 내에서도 목차를 활용해 읽기 좋게 했습니다. 아래 시험직전에 본 윌비스 모의고사 답안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수험 생활 일반

【건강 관리】

5월까지의 주2회 정도 웨이트를 했습니다. 공부를 오래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아프면 공부 컨디션에도 영향이 가는 것 같아서, 운동은 빠짐없이 하며 매일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공부시간, 스터디】

저는 공부시간 동안 딴짓하는걸 방지하고, 매일 일정량의 공부시간을 채우기 위해 캠퍼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캠퍼스터디를 통해,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 경쟁심,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 흐트러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습작예의 몰두” - 반 고흐, 조용한 싸움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금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변리사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 공부해내는 과정은 참 힘들고 긴 싸움입니다. 분명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틀리고, 하루 계획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자괴감이 들고, 내가 하고있는 방향이 맞는건지 모르겠고 하는 감정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듅니다. 하지만 반 고흐의 말처럼, 우리가 하는 공부가 쉬운 일이었다면, 우리가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변리사 합격이라는 꿈이 그렇게 가치있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